

■ **주요 뉴스:** 미국과 이란 레바논 내 충돌 방지 및 호르무즈 통항 보장 체계 마련 등에 합의

- ECB 총재, 중동전쟁 관련 더 강력한 대응 불필요, 6월 유로존 소비자신뢰는 개선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 등을 고려

■ **해외시각:** 미국 금융시스템 내 레버리지, 위험자산과 그림자금융 중심으로 확대

- 미국 증시, 高평가 징후·국채금리 상승 등은 호황 국면 저해할 위험 요인
- 연준 워시 의장의 포워드 가이드스 폐지, 국채금리 상승 등을 초래할 우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SpaceX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투심 위축되며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 진전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종전 협상 미찰 발생 가능성, 주요 국채금리 상승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내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으로 상승  
독일은 유가 하락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537.4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538.3원, 0.09% 상승). 한국 CDS 강보합

		6/22일	전일대비			6/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7,472.8	-0.37%	국채 금리 10y	미국	4.51%	+6bp
	유럽	639.27	+0.58%		독일	2.95%	-3bp
	일본	72,354	+1.55%		일본	2.68%	+3bp
	한국	9,114.6	+0.69%		CDS	한국	22bp
환율	달러지수	100.99	+0.14%	위험 지표	VIX	17.28	+2.98%
	유로화	1.1429	-0.37%		브렌트유	77.90	-3.31%
	엔화	161.57	-0.17%	원자재	금	4,190.1	+0.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600,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환율은 +(-)는 강세(약세).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과 이란, 레바논 내 충돌 방지 및 호르무즈 통항 보장 체계 마련 등에 합의

- 미국과 이란은 18시간 동안의 장시간 회의를 진행. 주요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레바논에서의 휴전 이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고, 미국 관계자는 핵무기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고 설명
- 구체적으로 ①레바논 내 군사작전 중단을 위한 '충돌방지기구' 설치 ②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을 위한 '통신 채널' 마련 ③양해각서 후속 협상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결성 ④핵문제·제재·분쟁 해결에 초점을 둔 실무그룹 구성 ⑤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에 합의
-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자국의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 제재가 철회되고 일부 동결자금 해제 및 대규모 재건·개발 계획이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첫 번째 시험대는 레바논 충돌방지기구라고 밝혀 레바논 사태 해결이 향후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
- 미국 밴스 부통령은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고, 이는 영구적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재무부도 이란産 원유 판매 및 인도를 60일간 임시 허용한다고 발표. 다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ECB 총재, 중동전쟁 관련 더 강력한 대응 불필요. 6월 유로존 소비자신뢰는 개선

- ECB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전쟁 영향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3%(연율)를 넘어서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목표(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탈리아 중앙은행 파네타 총재는 유로존 경제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 통합 등을 요구
- 한편,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는 -17.7을 기록, 전월(-19.0) 대비 소폭 개선.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중동지역 긴장 완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다만 일부에서는 ECB의 금리인상 등이 향후 소비자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Capital Economics). 한편, 스페인의 일부 은행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 스타머 총리, 사임 발표. 차기 총리로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유력**
  -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국정 부진 및 지지율 하락 등을 이유로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 이번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고, 파운드화는 소폭 약세.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비 소폭 올랐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 한편 차기 총리로 노동당의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유력. 또한 차기 총리가 현 리브스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 현재 여론조사 1위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 등을 고려**
  - 1년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3.0%, 3.5%로 동결. 시장에서는 내수가 극히 부진하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13개월째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고 평가. 아울러 당국은 부진한 내수와 고용 회복 지연 속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3/4분기까지 불균형적인 수출 의존적 상황을 용인할 것으로 추정(Commerzbank)
- **중국, 미국 10개 방산기업에 수출통제 부과. 46개 업체에는 정부조달 금지**
  - 상무부는 Aveox 등 항공우주, 드론, 로봇, 희토류 등을 주로 다루는 미국 기업 10개 업체를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재정부는 Lockheed Martin 등 46개 업체의 제품에는 정부조달 금지를 결정.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최근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
- **일본 총리,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수용. 일본은행 히미노 부총재도 물가 억제 강조**
  -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은행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경제, 물가, 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
  - 일본은행의 히미노 부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조정을 미루면 관련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S&P 글로벌 종합 PMI, 유로존 6월 HCOB 종합 PMI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스템 내 레버리지, 위험자산과 그림자금융 중심으로 확대 - Financial Times**  
(Leverage in the financial system, re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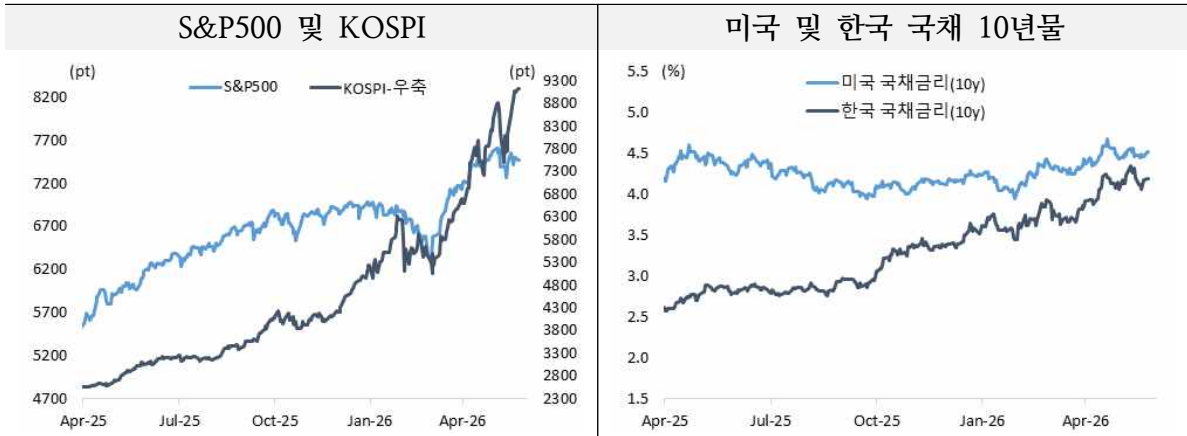
  - 금융시장 내 레버리지 문제가 중요한데, 이는 증시 과열이 대체로 레버리지를 동반하는 반면, 연준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호하기 때문. 실제로 일부 지표는 증시 과열을 시사. 일례로 올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기반 레버리지 ETF 인기가 급상승했고, 증권계좌의 마진대출 잔고는 4조 달러로 사상 최대
  - 한편 국채담보 레포 거래량은 1월 정점 이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헤지펀드의 국채 베이스 거래 축소와 연관. 다만 일부는 또 다른 상대가치 거래인 스왑 스프레드 거래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1/4분기 은행권의 그림자금융 대출도 전년비 30% 급증.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내 레버리지는 높고 빠르게 증가 중
- **미국 증시, 高평가 징후·국채금리 상승 등은 호황 국면 저해할 위험 요인 - WSJ**  
(The Biggest Risks Threatening This Highflying Stock Market)

  - 미국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의문이 제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 첫째, 高평가 징후. 일례로 초과 CAPE 수익률 등을 고려 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 둘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강화
  - 셋째, AI 투자 붐 기대 저하. 특히, 수익성 우려 등으로 인프라 투자 축소 시 기업실적과 경제성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 넷째, 주식발행 급증. 금년 1/4분기 기업의 순주식발행 규모는 '21년 이후 처음 플러스로 전환. 주식발행 자체가 주가 하락 요인은 아니나 과거 닷컴버블 시기에 유사한 현상이 발생
- **연준 워시 의장의 포워드 가이드언스 폐지, 국채금리 상승 등을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Kevin Warsh's push to axe Fed guidance may lift US borrowing costs, investors warn)

  - 연준 워시 의장은 금리 전망에 대한 예측을 돕는 중요한 도구 중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금리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국 더 높은 프리미엄 요구가 증가하여 국채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 투명성 저하로 시장에서 추측이 많아지고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JPmorgan)
  - 다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금리경로 확실성을 줄여 레버리지 확대 방지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연준이 금융자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정책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

- **중국의 석유 수입,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쟁前 수준 회복 기대안 - 블룸버그**  
(Chinese Oil Imports May Never Fully Recover From Iran War)
  -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2/4분기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0만배럴/일 감소할 것으로 추정(FGE NexantECA). 하지만, 중동전쟁 종전 후에도 석유 수입량은 다음의 이유로 전쟁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첫째, 전쟁 초기 유가 급등으로 내연 차량 수요가 감소하고 순수 전기차 등록대수가 급증(3월 38%→4월 42%). 이와 같은 변화로 석유 수요 감소는 고착화될 가능성. 둘째,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여전히 상당량 잔존하며, 석유 비축량 재고 보충은 유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해야 재개될 것으로 판단(FGE NexantECA)
  - 이에 올해 평균 석유 수요는 36만배럴/일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 초 석유 파동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연간 기준 감소가 발생한다는 의미
- **미국 동맹국, 트럼프 압력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對美 경제적 관계 재고 - Financial Times**  
(America's allies look to declare independence from the US)
- **유럽, 미국産 천연가스 의존도 증가 등으로 다변화 필요성도 증가 - 블룸버그**  
(Europe Is Becoming a Little Too Addicted to American Gas)
- **중국 위안화, 수출중심 경제 구조 등으로 미국 달러화 위상 위협에 한계 - Financial Times**  
(Why sinodollars outweigh the petroyuan)
- **이란發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의존 축소와 공급원 다변화 등을 요구 - 블룸버그**  
(Energy crisis call for diver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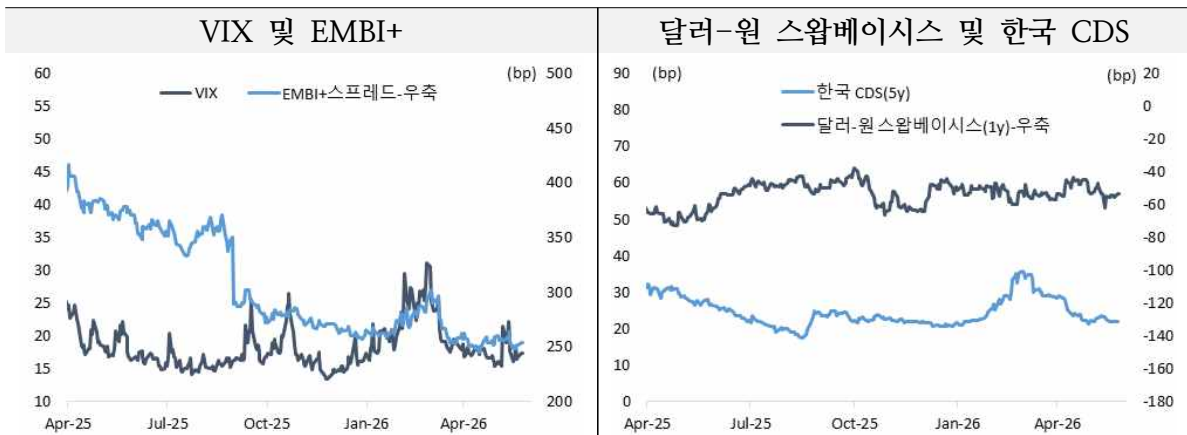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